

노인 생산적 활동의 복합성과 생활만족도*

김 주 현**

현재 각 사회에서 진행되는 생산적 노년 논의가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노인의 활동성과 독립성에의 강한 가치부여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노인집단 내부에 나타나는 생산적 활동의 복합적인 양상을 조명한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 중 유급노동활동과 사회지원활동 두 영역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제적 기반과 자발성,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복합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 분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연구 결과, 대표적 생산적 활동인 유급노동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양호한 상태이고 참여 동기가 노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과 비교하여 생활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생산적 활동 영역인 사회지원활동 중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의 경우, 참여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지원대상인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 생활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가족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

핵심단어: 노인 생산적 활동, 복합성, 생활만족도, 유급노동, 가정일 및 돌봄활동

I. 서론

노령인구의 증가가 갖고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적극적 노년'(Active ag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2002년 제2회 UN 세계고령화 회의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는 세계 각국이 모여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령자 집단의 새로운 모습을 논의하였다. 고령자의 독립성, 긍정

* 본 논문의 초고는 연구자의 박사논문의 일부이며, 2006년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것이다. 유익한 비평을 해주신 전광희 교수님, 박수미 선생님, 차승은 선생님, 《한국인구학》의 익명의 논평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일본 와세다대 현대한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적 노화, 고령자의 고유성 등 과거와는 다른 역동적 고령 세대를 조명하고 있다. 1999년 EU는 활동적인 노화의 5가지 요소로, 보다 오래 일하기, 퇴직 시기를 늦추기, 퇴직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건강을 지탱하는 활동에 계속 관여하기, 가능한 한 독립적이 되기를 제안했다(이가옥·우국희·최성재, 2004). 그리고 세계에서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경우, 90년대 중반 신골드플랜이 마련된 이후 노인을 제2의 현역세대로 규정하고 보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긍정적인 노인상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구미 선진국 뿐 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에서도 경제발전, 건강 및 교육수준의 향상, 사회·문화적 진보에 따라 독립성, 활동성, 생산성을 갖춘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노년관을 뛰어 넘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생기를 영위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장경섭, 2001; 이가옥, 2004). 노년기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이고 확실히 경험되는 것이 아니며, 노화는 쇠퇴 뿐 만 아니라 변화와 발달과 성장의 개념까지 내포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등장할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들은 지난 80년대 경제붐을 주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주축을 이루었다. 그런데 앞으로 이들이 최대의 피부양인구가 되는 것이다. 늘어난 수명과 향상된 건강상태와 교육수준 등은 이들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제2의 인생으로서 노년기를 구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산적 고령화 논의에 대한 고민으로써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들이 실제 노인들 생활에 있어서 제 의미를 지니며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양한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과연 노인들 자신에게는 실제로 생산적인 활동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질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해 볼 것이다. 생산적 노년이라는 중심 가치를 통해서 본 노인 생활세계 내부의 긴장과 차별적 양상은 노인 자신의 생활에 대한 평가, 삶의 질 평가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 내부의 복합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을 규명하는 통로(방법)으로써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노년기를 책임지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다양한(생산적)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노년기의 삶이 행복하다고 평가할 것인가? 연구자는 노인집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반응하여 자신의 노년기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노년기 생활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진행된 바람직한 노년기(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와 노년기 활동을 보면 노인이 지닌 인적, 물적 자원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즉 자원체계가 풍부할수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는 노인의 자원체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매우 긍정적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의 자원체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에 보다 관심을 두고 분석해 본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의 참여가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적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드러날 것인가? 또 한편,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양상에서 드러나는 이중적 상황들을 파악하는 통로내지는 방법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사용해보려고 한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 내부의 이중성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실제 노인의 차별적 상황에 의해 유발되고 수행되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들은 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분석을 통해 노인집단의 생산적 활동 참여가 변화하는 현대 사회 노년기의 형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됨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생산적 활동이라는 개념은 생산적 고령화 논의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년기의 의미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뺀 경험적 연구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이루어지는 생활세계 구성 활동 중 어떠한 활동을 노년기 생산적 활동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시장가치가 있는 유급활동만을 생산성으로 보는 순수 경제학적 관점에서 노인의 생산적 행위 개념을 적용하면 편리하지만 노년기 생산활동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되었다(S. A. Bass, F. G. Caro & Y. Chen, 1993).

인간의 여러 활동 중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킬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기여분이 공식적인 지표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년기에는 유급노동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적일 수 있음에 깨닫는 것이 노년기 생산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Hooyman & Kiyak, 1995)는 주장이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무급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자신들과 타인들을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내는데, 노인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다른 부분에 의해 사회적 비용을 들여 생산, 제공되어져야한다. 대체적으로 노년기 생산활동은 은퇴 이후에 노인 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활동들 중 제한적인 유급 활동뿐만 아니라 무급 활동, 사회 기여 행위 등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구분된다.

생산적 행위를 경제적 특성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 측면을 포함시켜서 사회와 타인에 도움이 되는 원조활동까지 포함하여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노인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나 취미나 여가활동, 학습 등 노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위도 생산적 행위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홍현방, 2005; Butler & Schecher, 1995).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다음과 같은 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것이다. 첫째, 생산적 활동에 대한 전통적 구분인 유급 노동, 둘째, 사회적 기여 측면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무급의 가정일과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와 타인을 돕는 행위, 셋째, 노인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독립적 생활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부분이다.

한편, 지금까지 노인의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라는 주제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영역이었으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들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1998; 김익기·김동배·모선희·박경숙·원영희·이연숙·조성남, 1999; 김정석·김익기, 2000; 권중돈·조주연, 2000). 생활만족도는 보통 노인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연구되어왔다. 기존의 노년기 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들로 노인의 개인적 특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노인 개인적 특성이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노인의 성, 건강, 교육수준, 경제적 상황 등 객관적 상황변수에 주목하는 연구와 우울감이나 자존감 등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부터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검증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는 노년기 관계를 생활만족도와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나 친척 등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결국 노인의 자원체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 기존 연구 결과들의 내용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특성들에서 나아가 노인이 참여하는 활동에 주목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인의 상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노인의 자원으로 작용함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변화를 준다는 지금까지의 연구는 분명 노인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현재 변화하는 노년기의 모습을 보면 점점 노인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 참여여부가 노년기의 중요한 차별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또는 자신의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또 다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변수로서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경향이 고령인구로 인한 사회적 부담증가, 생산성 감소와 연결되어 사회적 위기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노인집단으로 하여금 부단한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매우 독립적이고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할 수 있는 노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노인들도 과거와 다르게 노년기에 들어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노인들이 각 자의 여건에 따라서 생산적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자.

Ⅲ.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 개인조사 자료의 노인 직접 응답자 3,029명 중 도시지역 노인 2,05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지역 노인과 농촌 노인은 생활세계 구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농사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활동 참여율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에는 유급노동 참여 양상에 있어서 농촌 노인과 다르며, 참여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농촌 노인과 차별적이다. 차이가 분명한 두 노인집단을 분석 대상에 함께 포함시킨다면 노인 생활세계 양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노인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사회 인구학적 변수별로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영역	항목	N	%
성	남	802	39.1
	여	1,250	60.9
연령	65-69세	825	40.2
	70-74세	625	30.5
	75세 이상	602	29.3
교육수준	무학	688	33.5
	초등학교	711	34.7
	중학교 이상	653	31.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233	11.4
	약간 나쁘다	530	25.8
	보통이다	570	27.8
	약간 좋다	527	25.7
	매우 좋다	192	9.3
최장종사직업	전문/사무관리직	377	18.4
	판매서비스직	318	15.5
	농/어/축산업	470	23.0
	기능/노무/기타직	664	32.4
	직업없었음	219	10.7
혼인상태	무배우	898	43.8
	유배우	1,154	56.2
가구형태*	노인독신가구	424	22.1
	노인부부가구	676	35.2
	자녀동거가구	820	42.7
자녀규모	없다	102	5.0
	1-2명	470	22.9
	3-4명	836	40.7
	5명 이상	644	31.4
자녀자원	보유	1,543	75.2
	비보유	509	24.8
월평균수입(비근로/사업수입)	20만원 미만	938	45.7
	20-40만원 미만	655	31.9
	40-60만원 미만	172	8.4
	60-100만원 미만	97	4.8
	100만원 이상	189	9.2
노후준비	예	571	27.8
	아니오	1,481	72.2
공적연금수혜	수혜	250	12.2
	비수혜	1,802	87.8
계		2,052	100.0

주: * 손자녀 동거 가구는 자녀 동거 가구로 포함. 동거 가구는 있으나 미상인 경우 포함하여 기타 132명은 분석에서 제외시킴. 전체 2052명.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자녀동거와 노인가구(비동거)로 나누어 분석함.

그리고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종류와 척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독립 변수로 사용될 노인의 활동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¹⁾ 첫째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생산과 관련된 활동이다. 이는 앞에서 구분한 노인의 생산적 행위 범위 중 가장 협의의 정의에 의한 것으로 유급노동여부에 따라 나누었다.

두 번째는 시장가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파악되기 어렵지만, 노인들의 활동 참여를 통해 전체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감소되고 재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실제로는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생산적 활동으로 포함시키는 활동역역이다.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공식적 사회 역할자로서는 물러났지만 이 영역의 활동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집단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조명하는 데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 활동으로는 ①가족 및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변수로 조작하였다. 간병 및 수발, 손자녀돌보기, 가사노동이나 시장보기와 같은 가정일 등의 도움 제공 행위 등을 가정일 및 돌봄활동으로 보았다. ②대외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이 아닌 타인을 돕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가 해당되는데 타인돕기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는 생산적 활동의 가장 포괄적 정의에 따라 구분되는 활동이다. 자기개발활동으로 명명하였는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학습활동),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사회단체활동)를 여기에 포함하였다. 사실 노인의 대표적 자기개발활동으로 간주되는 활동이 여가 활동인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사회단체 참여 활동여부가 이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정치단체 참여여부가 이에 해당된다.

통제변수는 우선 노인 기본 특성으로 성, 연령을 사용하였고, 인적자원, 가족자원, 물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인적 자원에는 교육수준, (최장종사)직업²⁾, 건강상태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가족자원으로 혼인상태, 가구형태, 자녀규모, 자녀지원여부를 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시켰고,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변수를 물적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노인의 소득으로 월평균 수입 중 비근로 사업 소득³⁾, 노후

1) 덧붙여,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노인의 생활영역이 단순하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노인이 생활세계 구성을 이루는 활동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며 그 정도나 양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활동들을 생산적 활동이라 일컬어지는 영역과 참여여부로 제한적으로 범주화한다.

2) 노인의 이전 종사 직업은 노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현장훈련, 경험, 기타 지식이 축적되었을 것으로 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여겨져 인적자원으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표 2> 변수의 종류 및 척도

변수		구분 및 척도	
기본 특성	성	남성, 여성	
	연령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	
인적자원	교육수준	무학,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이상으로 구분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최장종사직업	전문/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축산직, 기능/노무/기타직, 직업없었음으로 구분	
통제 변수	혼인상태	유배우, 무배우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기타 제외)	
	자녀규모	없다, 1-2명, 3-4명, 5명 이상으로 구분	
	자녀지원	보유, 비보유로 구분	
물적자원	소득	월평균 총수입 중 비근로/사업 소득(자산소득, 연금/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 등 합계)	
	노후준비	예, 아니오로 구분	
	공적연금수혜	수혜, 비수혜	
독립 변수	경제적 활동: 유급노동	현재 유급활동 여부: 한다=1, 안한다=0	
	사회 지원 활동	가정일 및 돌봄활동 타인돕기	도움제공행위(간병/수발, 손자녀돌보기, 가사노동, 시장보기): 한다=1, 안한다=0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한다=1, 안한다=0
	자기 개발 활동	학습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컴퓨터이용: 한다=1, 안한다=0
		사회단체활동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단체 참여 여부: 한다=1, 안한다=0
종속 변수	생활만족도	동년배에 비한 생활만족도(삶의 질-행복감): 5점 척도*	

주: * 노인의 전체 생활의 만족도를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자료에는 노인의 생활(건강, 경제, 배우자/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는 4항목이 있는데 이 각각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나의 질문으로 하고 있고, 이후 노인의 상황을 구분하는 척도를 구성하는데 각 각의 평가항목이 사용되므로 제한적이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 평가 항목을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수로 활용함을 밝힌다.

준비 여부, 공적연금 수혜 여부가 포함된다. 사실 노인의 소득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이후 분석에서 노인의 유급노동활동이 종속변수로 사용되는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순수하게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의한 활동의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한적이지만 노인의 경제적 상황의 판단은 월평균 수입 중 비근로 사업 소득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점차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 줄어들고 노후대책의 책임이 노인

3) 비근로 사업 소득은 노인의 자산소득, 연금/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 등의 합계이다.

스스로와 사회적 부담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보이는 시점에서, 노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였는지 여부는 노인의 생활세계의 적극성을 가름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상한다. 그리고 노인 부양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여론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실제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에 일종의 사회적 대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공적연금 수혜 여부를 변수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조사 내용 중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어르신 삶의 질(행복감)은 어떤 편입니까?” 라는 질문 내용에 대한 5점 척도 점수를 변수화 하였으며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생산적 활동의 참여 이면에 존재하는 노인집단 내부의 차이와 차별적 양상(이중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우선 각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여부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평균비교(t-test)하고, 노인의 다양한 특성들을 통제했을 때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나아가,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 기반에서 예상되는 차별적 양상에 따라 노인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구분된 노인집단의 생활만족도에서도 이중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지 검토하기 위해 노인의 유급노동유형과 가족돌봄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영향 받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IV. 분석결과

1.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

노인은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세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활동은 노인 개인의 특성으로부터 조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동원 가능한 자원과 관계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노인의 개별 특성이 실현되는 것이 노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가는 노인의 생활세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며, 이러한 각 활동에의 참여가 실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노인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지의 문제

는 노인이 선택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선택이 결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서 영향을 미침을 규명해야한다.

노년기 활동의 실태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생활세계가 매우 차별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박민자·손문금, 2005; Herzog, 1989; Hochschild, 1989; Gershuny, 2000). 따라서 생산적 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표3). 먼저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유급노동의 참여에 있어서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기타 사회지원활동과 자기개발활동 영역에서는 참여 여부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단체활동에의 참여 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다른 활동에 비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 노인의 경우에도 유급노동활동 참여 이외 모든 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여러 활동 중 참여인원수는 적지만 타인돕기 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 노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단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활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또 하나, 생산적 활동의 각 영역 중 생활만족도 차이에 있어서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에 남성 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노인들에게는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의 생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매우 강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단체활동에

<표 3>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 여부와 생활만족도

(단위: 명, 5점 척도의 평균값)

변인		남성			여성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유급노동	한다	261	3.34(0.85)	.54	182	2.93(1.03)	3.70
	안한다	538	3.29(0.97)		1,059	3.08(0.99)	
가정일 및 돌봄활동	한다	478	3.36(0.86)	4.28 **	813	3.12(0.96)	9.22 ***
	안한다	320	3.23(1.03)		429	2.94(1.05)	
타인돕기	한다	42	3.70(0.89)	7.85 ***	45	3.47(0.78)	7.79 ***
	안한다	756	3.28(0.93)		1,196	3.04(1.00)	
학습활동	한다	162	3.62(0.85)	23.74 ***	209	3.28(0.86)	11.89 ***
	안한다	636	3.23(0.94)		1,032	3.02(1.02)	
사회단체활동	한다	552	3.46(0.85)	49.51 ***	853	3.17(0.95)	36.63 ***
	안한다	246	2.97(1.01)		388	2.81(1.06)	

주: * p<0.1, ** p<0.05, *** p<0.01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런데 각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를 구분하여 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의 생산활동 효과와 노인의 특성 효과(개인특성, 인적/물적/가족 자원)가 아직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표 3>의 각 활동영역별 생활만족도를 보면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서 만족도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이것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분석하여야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노인특성을 통제한 후 노인의 생산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후 회귀분석으로 알아본다). 그렇지만 <표 3>의 분석에서는 각 생산적 활동영역별로 나타난 만족도의 차이에 주목함에 따라 생산적 활동의 특성이 남·여 노인의 만족도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을 예측해본다. 즉 유급노동활동이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남성 노인에게 있어서 유급노동활동에의 참여는 노년기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배우자를 부양하고 사회적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중·장년기까지 유급노동활동을 한 여성노인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유급노동활동을 한 경우에도 노년기 이후까지 지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노년기 이후에도 여전히 유급노동 활동을 하는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남성 노인과 달리 이전 경력의 유지나 자기개발 차원에서 유급노동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이후 여성 노인이 유급노동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경우에는 생계를 위한 참여일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급노동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정일과 돌봄활동의 경우에도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전적인 활동 참여보다는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참여가 많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가정일과 돌봄활동이 노년기에도 여전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활동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가정일과 돌봄활동의 참여여부에 있어서 나타나는 생활만족도 차이의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노인 생산적 활동 기반의 복합성

동일한 생산적 활동 영역에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이 처한 상황 따라, 즉 노인의 활동 참여의 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 노인의 생활세계는 매우 복잡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노년기 생산적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유급노동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특성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활동 참여 기반이 매우 차별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다시 하위 집단으로 나누었다. 노인의 유급노동 활동에의 참여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우선, 조사 내용 중에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문항(5점 척도)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좋다고 평가한 노인들과 나쁜 편이라 응답한 노인들을 구분하였다.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유급노동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유급노동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노인의 유급노동활동 참여 동기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 하느냐에 따라 구분하였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취업동기에 대한 질문이 있다. 그 응답에 따라 유급노동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인 취업동기(취업동기 중 일하는 것이 좋아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와 주변 상황에 의해 이루어진 비자발적인 취업동기(돈이 필요해서, 일손이 모자라서)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로,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참여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경우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실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분석 결과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 월평균 소득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가정일과 돌봄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지만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여성 노인의 경우도 두 번째로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 점은 가정일과 돌봄 활동에 있어서도 참여활동을 동일한 차원에서 보기보다 내부의 차별적 양상에 따라 구분해 볼 필요를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주관적 경제적 상황의 평가 여부에 따라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구분했다.

4) 5점 척도 변수를 이항분포 변수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상태에 대한 만족/불만족을 분명하게 표현한 노인들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도에서 중간값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제외하였다. 가정일 및 돌봄활동의 상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5점 척도의 변수도 마찬가지로 중간값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제외하고 만족/불만족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은 활동의 성격 상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이 느끼는 가족과의 관계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상황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에는 노인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5단계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활용하여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 중 가족관계가 좋은 편인 노인과 나쁜 편인 노인을 구분하였다. 노인들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편으로 평가하는 만족 상황 하에서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불만족한 상황에서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이렇게 구분된 노인 특성 집단은 유급노동활동과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서 각각 4개이다. 유급노동활동 중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유기반 유급노동활동 집단 - 생계기반 유급노동활동과 참여 동기에 따라 자발적 유급노동활동- 비자발적 유급노동활동으로 나뉜다.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유기반 돌봄 활동 - 생계기반 돌봄 활동과 가족관계 만족 돌봄 활동 - 가족관계 불만족 돌봄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특성집단별로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좋다고 평가하면서 유급노동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에 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3.7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노인 중 유급노동활동에 참여한 경우의 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3.17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반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쁘다고 평가한 노인들이 유급노동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생계기반 활동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 유형의 노인들은 생활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이 2.72로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이들의 생

<표 4> 노인 특성 집단 별 생활만족도 차이

	N	평균(표준편차)	t
여유기반 유급노동형	103	3.71(0.64)	79.62***
생계기반 유급노동형	201	2.72(1.03)	
자발적 유급노동형	115	3.60(0.75)	
비자발적 유급노동형	328	3.02(0.97)	32.85***
여유기반 돌봄 활동형	264	3.93(0.55)	329.51***
생계기반 돌봄 활동형	616	2.76(0.98)	
만족 돌봄 활동형	907	3.49(0.75)	
불만족 돌봄 활동형	164	2.25(1.03)	

주: * p<0.1, ** p<0.05, *** p<0.01

생활만족도는 전체 노인의 경우, 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과 비교하여도 낮게 나타났다(유급노동 비참여 노인 생활만족도: 3.15). 그리고 노인이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상황의 자발성에 따라 나는 경우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유급노동활동의 참여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노인들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3.60이었고,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평균값은 이보다 낮은 3.02였다. 이는 이들 각 활동 영역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노인의 활동 참여 기반 요인에 의해서 생활만족도가 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좋다고 평가하면서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는 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3.93이었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이들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2.76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노인 중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3.06인 것과 비교하면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 내부에 상당한 생활만족도의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이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을 지원하는 대상들과의 관계에 따라 나는 후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가족(배우자와 자녀)관계에 만족하는 편인 경우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생활만족도 평균값이 3.49이고, 돌봄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인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만족을 표시하는 노인이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에 생활만족도 평균값은 2.2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주요한 요인에 의해 나누어 특성집단 별로 생활만족도를 비교해 보니, 유급노동활동의 경우에는 활동 참여 상황에 있어서 참여 동기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활만족도의 차이도 크지만 돌봄 활동의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더 크게 두드러진다.

3. 생산적 활동 영역에 따른 생활만족도에의 영향

노인이 각 영역의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노인의 다양한 특성 변인들을 통제하고 난 후 생산적 활동의 생활만족도에의 영향

력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5>에서 {모형 1}은 각 노인의 활동영역이 생활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준다. 이 모형에 의하면, 노인 활동영역 중 사회단체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활동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인돕기 활동의 긍정적 영향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marginally)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급노동활동과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의 참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영역의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노인기본속성과 인적 자원 변수들을 포함하여 확장한 모형이다. 이들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노인활동 영역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도록 해준다. 노인의 기본속성변수와 인적 자원 변수들의 영향을 보면, 예상한 대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무학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최장 종사직업에 있어서 직업이 없었던 경우의 노인에 비해 농/어/축산업에 종사했던 노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반면 기능/노무/기타직에 종사했던 노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분석에서는 노인의 기본속성과 인적 자원변수들의 미세한 변화들이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모형 1}에서 노인기본속성과 인적 자원 변수들을 포함하는 {모형 2}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변수들을 하나씩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을 수행하였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 영역 별 생활만족도 영향을 보면, {모형 1}에 비해서 변화를 보인다. 유급노동의 경우에 노인의 성별 변수가 포함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유급노동에의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부적(nega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즉 노인의 성을 통제했을 경우에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 노년기에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남성 노인과 달리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기본속성과 개인특성에서 비롯된 노인의 상황이 노인의 유급노동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연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급노동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낮출 개연성이 높다.

<표 5> 생산적 활동 영역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b(S.E.)	b(S.E.)	b(S.E.)
유급노동	.028(.051)	-.076(.051)	.010(.055)
가정일·돌봄 활동	.018(.019)	.004(.018)	-.046(.020)**
타인돕기 활동	.221(.107)**	.081(.099)	.077(.100)
학습활동	.178(.049)***	.094(.046)**	.110(.048)**
사회단체활동	.255(.029)***	.158(.028)***	.135(.029)***
성(기준 : 여)			
남		-.057(.051)	-.289(.060)***
연령		.079(.026)***	.114(.028)***
건강상태		.261(.018)***	.248(.018)***
교육수준(기준 : 무학)			
초등학교		.335(.052)***	.258(.054)***
중학교 이상		.426(.068)***	.323(.070)***
최장종사직업(기준 : 직업없었음)			
전문/사무관리직		-.016(.088)	-.024(.091)
판매/서비스직		-.105(.079)	-.029(.082)
농/어/축산업		.254(.055)***	.191(.057)***
기능/노무/기타직		-.228(.073)***	-.941(.076)
혼인상태(기준 : 무배우)			
유배우			.354(.055)***
자녀규모			-.006(.012)
자녀동거(기준 : 비동거)			
동거			.173(.045)***
자녀지원(기준 : 비보유)			
보유			.155(.051)***
소득(기준 : 20만원미만)			
20-40만원 미만			.071(.048)
40-60만원 미만			.212(.078)***
60-100만원 미만			.423(.100)***
100만원 이상			.390(.094)***
노후준비여부(기준 : 무)			
유			.172(.058)***
공적연금수혜(기준 : 비수혜)			
수혜			-.110(.075)
상수	2.851(.40)	1.942(.109)	1.570(.125)
N(d.f)	2,039(5)	2,036(14)	1,904(24)
R2	.061	.208	.240

주: * p<0.1, ** p<0.05, *** p<0.01

타인돕기 활동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통제되면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진다. 결국 타인돕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단순히 타인돕기 활동에의 참여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육변수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년기 생산적 활동 중 사회지원활동 참여는 노인의 기본속성과 인적 자원변수들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사회단체활동 참여가 유의성 수준은 유지되지만 그 크기가 다소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모형 3}은 {모형 2}에 노인의 가족자원과 물적자원 변수들을 포함시켜 더욱 확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실제 분석에서는 {모형 3}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변수들을 하나씩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노인의 기본속성과 인적자원변수들은 영향에 있어서 크기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지고 영향력을 유지한다. 부가된 가족자원변수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양적규모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여부나 관계 양상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물적자원 변수를 보면, 20만원 미만의 경우에 비해 소득이 20만 원 이상의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노후준비를 한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노인의 경제적 상황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모형 3}에서 나타나는 노인 생산적 활동 영역과 생활만족도 관계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의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부정(nega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물적 자원 변수를 통제했을 때 노인들이 가정일이나 돌봄 활동을 하는 것이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의 참여율이 높은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통제되었을 경우에 노인이 가정일이나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다지 노인의 생활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노년기에 성인자녀나 손자녀 등 자녀세대에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노년기에 새로운 역할로 인하여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던 기존 연구(옥경희, 1998; 조병은·이미숙·강란혜·Naomi Yatomi·Takiko Maehara, 2002)에 비판적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육체적 고충과 스트레스는 매스컴의 보도 뿐 만 아니라 연구 논문(권인수, 2000; 김혜선, 2005)에서도 나타났는데 {모형 3}은 이러한 현실을 자료 분석의 결과로서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단체활동의 참여는 노인의 여러 특성 변인을 포함한 {모형 3}에서

도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단체활동의 참여가 노인의 생활세계의 상황이 어떠한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 영역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노인의 인구학적 배경과 자원체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노인들은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생활만족도가 높고,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생산적 활동 참여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에의 영향

1) 유급노동

유급노동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보기 위해서 유급노동활동영역에서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비노동)을 기준으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각 4개의 특성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이 유급노동활동참여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지만 생산적 활동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므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비노동)을 노동유형으로 간주하여 변수화 함으로써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노인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을 구분하여 생활만족도에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남성 노인은 학습활동과 사회단체 활동의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유형에 따라서는 유급노동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고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동기도 자발적인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유급노동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자발적으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서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의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남성 노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활동 참여는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유형별로는 남성 노인과 동일하게 여유기반 - 자발적 유급노동인 경우에는 유급노동을 안하는 노인에 비해서 생활만족도가 높지만, 생계를 위한 비자발적인 유급노동활동에의 참여는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데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회귀계수: -.554). 이는 상대

<표 6> 유급노동활동 참여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회귀분석

	남	여
	b(S.E.)	b(S.E.)
가정일·돌봄활동	.009(.032)	-.096(.029)***
타인돕기 활동	.174(.145)	.040(.146)
학습활동	.171(.071)**	.097(.067)
사회단체활동	.153(.044)***	.138(.040)***
노동유형(기준 : 비노동)		
여유기반-자발적 유급노동	.303(.143)**	.698(.327)**
여유기반-비자발적 유급노동	.177(.159)	.302(.192)
생계기반-자발적유급노동	-.267(.188)	-.079(.300)
생계기반-비자발적유급노동	-.338(.108)***	-.554(.107)***
연령	.161(.046)***	.100(.037)***
건강상태	.228(.029)***	.256(.026)***
교육수준(기준 : 무학)		
초등학교	.310(.115)***	.208(.065)***
중학교 이상	.358(.117)***	.337(.090)***
혼인상태(기준 : 무배우)		
유배우	.510(.109)***	.345(.071)***
자녀규모	.030(.022)	-.006(.016)
자녀동거(기준=비동거)		
동거	.113(.071)	.237(.063)***
자녀지원(기준=비보유)		
보유	.064(.076)	.175(.075)**
노후준비여부(기준 : 무)		
유	.330(.086)***	.193(.081)**
공적연금수혜(기준 : 비수혜)		
비수혜	-.089(.093)	-.041(.143)
상수	.980(.196)	1.685(.134)
N(d.f=18)	666	1108
R2	.291	.229

주: * p<0.1, ** p<0.05, *** p<0.01

적으로 노년기 이전까지 유급노동활동에 참여가 적은 여성 노인이 노년기에 들어서 생활의 곤궁함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나, 노년기 이전 시기에 취업을 활동을 했던 경우라도 노년기에 들어서 여전히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떨어짐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노인의 유급노동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영향을 살펴보면,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양상이 경제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노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활동인 경우에만 자신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표적 생산적 활동인 유급노동의 활동이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일 경우에는 생활만족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임이 드러난다.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유급노동활동 등 기타 생산적

활동이 동일하다고 간주했을 때 생활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계수: .510)임을 알 수 있다.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활동의 조력자로서 배우자가 옆에서 수발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

2) 가정일 및 돌봄 활동

다음으로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보기 위해서 가정일 및 돌봄 활동 영역에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비돌봄)을 기준으로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각 4개의 특성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여 생활만족도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족일 및 돌봄 활동의 유형을 나누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양호하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과 원만한 관계에 있을 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전체 노인의 생산적 활동 영역에 따른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표 5〉 참조)에서는 노인이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는데, 이번 분석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 참여 양상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증명했다. 즉, 노인의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의 참여 양상에 있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돌봄 대상 가족과의 관계에 불만족할 경우에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의 참여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통계적으로 드러냈다. 분석 결과,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나쁘게 평가하면서 돌봄 대상의 가족과의 관계에 불만족한 경우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른 변인에 비하여 매우 강하게 미침을 알 수 있다(회귀계수: 남성노인은 -.817, 여성노인은 -.968).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은 배우자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활동인데 이들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럽다면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 중 경제적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노인과 불만족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표면적인 활동 참여 이면의 차별성을 드러내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각 생산적 활동 영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여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결됨을 밝힘에서 나아가, 그 내

<표 7> 가정일/돌봄활동 참여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회귀분석

	남	여
	b(S.E.)	b(S.E.)
유급노동	.018(.069)	-.096(.077)
타인돕기 활동	.221(.143)	.115(.146)
학습활동	.127(.070)	.117(.065)
사회단체활동	.119(.042)***	.115(.038)***
가족돌봄유형(기준 : 비돌봄)		
여유기반-만족 돌봄 활동	.444(.096)***	.569(.086)***
여유기반-불만족 돌봄 활동	-.040(.737)	.093(.346)
생계기반-만족 돌봄 활동	-.105(.083)	.018(.075)
생계기반-불만족 돌봄 활동	-.817(.156)***	-.968(.106)***
연령	.149(.044)***	.091(.036)**
건강상태	.216(.027)***	.191(.025)***
교육수준(기준 : 무학)		
초등학교	.228(.110)**	.166(.063)***
중학교 이상	.299(.110)***	.242(.088)***
혼인상태(기준 : 무배우)		
유배우	.452(.102)***	.270(.064)***
자녀규모	.025(.020)	.005(.015)
자녀동거(기준 : 비동거)		
비동거	.117(.067)	.178(.059)***
자녀지원(기준 : 비보유)		
비보유	.066(.073)	.153(.071)**
노후준비여부(기준 : 무)		
무	.298(.083)***	.111(.077)
공적연금수혜(기준 : 비수혜)		
비수혜	-.084(.089)	-.028(.137)
상수	1.228(.189)	1.831(.131)
N(d.f=18)	691	1,083
R2	.325	.289

주: * p<0.1, ** p<0.05, *** p<0.01

부에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들의 양상과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생산적 고령화 담론이 자칫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이라는 도식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노인의 각 생산적

활동참여가 실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어떻게 관련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지 살펴본다. 즉,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갖는 다양성을 경험적 결과를 통해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노인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생산적 활동 영역 중 생활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자기개발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단체 활동 참여는 사회인구적 배경이 어떠한 자원체계가 어떠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년기에 들어서 여전히 수행하여야 하는 가정일과 돌봄 활동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노인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차별적 상황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급노동의 경우, 경제적 상태와 취업활동에의 참여 동기에 따라 구분하여, 경제적 형편을 낮게 평가하는 노인들의 경우와 유급노동활동의 참여의 동기가 비자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노인들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 평가가 낮게 나타난다. 결국, 유급노동활동이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일 경우에는 생활만족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어 드러났다.

가정일 및 돌봄 활동에 있어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돌봄 활동의 대상인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의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의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두드러지는데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나쁘게 평가하면서 돌봄 대상의 가족과의 관계에 불만족한 경우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른 변인에 비하여 매우 강하게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 있지만 생활만족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자발적이고 독립적 선택에 의한 경우에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평가가 긍정적이다. 반면,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가 매우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면,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적 노년이라는 개념 하에 노인집단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 차원이 노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생활만족도라는 평가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각 생산적 활동 영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들의 특성과 상황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기존에 이루어진 노인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족 및 사회관계로부터 주요한 영향 요인을 찾았던 경향에서 보다 복합적인 노인 상황의 결과인 노인의 활동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년기에 생산적이라고 규정되는 활동들이 노인들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밝힘으로써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인집단의 현실 적합한 노년기 모습을 조명해 보는 시도였다. 그리고 노년기 이전 시기, 중·장년층까지 생활의 주를 이루었던 공적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러났지만, 전통적 노년기에서 의미했던 사적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중간 영역을 개발하는 노인의 생활세계 구성을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자녀양육과 사회경제적 과업 달성이라는 책임을 털어버린 자유로운 노년기의 독특한 주체적 활동을 만들어 가는 노년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변화하는 노인집단 내부에서 생산적 활동 참여 여부가 노년기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체적 관점에서 생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활동참여가 노인의 실질적인 생활세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활동 수행과 관련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즉, 노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활동들에의 참여가 노인들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활동인지 보다 심층적인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노인의 활동들의 표면적인 양상만을 구분하여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권인수 (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영범·박준식 (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169-185.
- 김익기·김동배·모선희·박경숙·원영희·이연숙·조성남 (1999) 《한국노인의

- 삶: 진단과 전망》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정석·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김혜선 (2005) “농촌과 도시 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 341-378.
- 박민자·손문금 (2005) “고령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덕성여대 《사회과학연구》 11: 121-145.
- 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육경희 (1998) “노부모의 역할인지, 역할수행 및 역할수행만족도-농촌노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 77-93.
- 이가옥·우국희·최성재 (2004)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56(1): 5-22.
- 이호성 (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3): 123-138.
- 장경섭 (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화》 13(1): 1-29.
- 정경희·석재은·오영희·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 (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들 (2004) “저소득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 특성: 연결고리의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24(0): 7-29.
- 조병은·이미숙·강관혜·Naomi Yatomi·Takiko Maehara (2002) “한국과 일본 취업모 가정의 조모 역할과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1(3): 213-229.
- 허준수 (2004)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0): 127-151.
- 홍현방 (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2): 203-235.
- Bass et al. (1993)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Westport CT: Auburn House.

- Butler & Shelter (1995) *Productive Aging The Encyclopedia of Aging* NY: Springer.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rzog, A. R., et al. (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ervices* 44(4): s129-s138.
- Hochschild, Arlie (1989) *The Second Shift*, Avon Books.
- Hooyman & Kiyak (1996) *Social gerontology* MA: Allyn & Bacon.

[2007. 8. 29 접수 | 2007. 10. 28 채택]

Complexity of Productive Activities and Life-Satisfaction of Korea's Older People

Ju-Hyun Kim

Current discussions on productive aging are going towards the direction to sustain a social productivity and lessen a social burden, and this becomes distinct as it gives a strong value to the activity and independence of older people. This study highlights complex situations of productive activities in the group of older people by analyzing the survey of <The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2004> Among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older people, two areas of activities - paid labor and social support - were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economic stability, spontaneity and family relations. This difference becomes more remarkable in the analysis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In paid work, which is the most common productive activity,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etween those who work spontaneously and those who work inevitably to make a living. And in the comparison of life satisfaction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homemaking and care working according to their economic situations and family relations, those who were unsatisfied with family relations showed lower life satisfaction.

Key Words: Complexity, Productive Activities, older people, Life-Satisfaction, paid labor, homemaking and care working